

[**종합·해설**]

한·미 FTA 국회비준 전망

한·우리 “**득실 따져보고...**”

**쌀 포함될 경우 ‘문지마 부결’ 확실
찬성 당론 나와도 개별 투표 될 듯**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고위급 회담만을 넘겨놓은 가운데 벌써부터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과정 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제 정당과 정파간 찬반론이 어지럽게 제기 되면서 “비준동의안 처리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측이 협상 막판에 제기한 쌀시장 개방문 제가 최종 협상안에 포함될 경우 비준동의안은 부결 될 가능성이 확실해 보인다. 235석의 의석을 보유한 양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시장 개방문제가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우선 민주당과 민생정치모임 소속 의원 17명은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3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 19명이 “한미 FTA 협상이 명분과 실익을 잃었다”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알 수 있듯이 최대 80

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 출신 의원들도 반대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어림잡아도 110여명 가량의 의원들이 반대입장에 설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나라당과 우리당, 통합신당추진모임은 자동차·쇠고기·무역구제·개성공단·방송·금융 등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결과를 지켜보고 득실을 판단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찬반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있다.
물론, 이들 정당은 국익 차원에서 FTA 체결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 찬성론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사안은 지도부의 의견을 개별 의원들이 따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2005년 11월 WTO 쌀 판매와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무난히 처리된 사례를 들어 낙관론을 펼치는 견해도 있다. 당시 비준동의안은 223명이 표결해 참여해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협상의 성격상 한미FTA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큰데다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당시와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강·2중·1약... 호남 대의원표가 좌우

■ **민주 선장 누가 될까... 4·3 전대 분석
박상천·장상 서로 승리 장담속
김경재·김영환 다크호스 부상**

정계개편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호의 새로운 선장을 뽑는 4·3 전당대회에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대통령 신당의 창당 방법과 흐름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대선구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대의원 40%를 점하고 있는 호남지역 대의원의 선택은 대표 경선의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대표 경선은 장상, 박상천 전 대표를 비롯 김경재, 김영환, 심재권 전 의원 등이 나서면서 5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대표 경선 구도를 2강, 2중, 1약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상천, 장상 전 대표가 2강, 김경재, 김영환 전 의원이 2중, 심재권 전 의원이 1약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한화강 전 대표와 공동 대표를 맡으며 당내 주류로 분류됐던 장상 전 대표가 대표 경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 반적으로 당 대표 경선에서는 주류가 7대 3 정도로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전 대표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에 입문,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정통 민주당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통성 시비까지 일면서 주류의 기득권을 당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다.
장 전 대표의 최대 우군인 한화강 전 대표도 적국 뛰고 있지만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당내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여기에 적극 도와줄 것으로 예상됐던 현역 의원들도 이상열, 제일 병 의원 등을 제외하고 광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호남지역과 수도권 지역 대 의원들이 비교적 개혁 성향인데다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은 장 전 대표측에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에 맞서 박상천 전 대표는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다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정계개편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의 대표직의 책임자는 대의 협상력 등 정치력이 검증된 인사가 많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의원들 사이에 형성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과거 및 사수과 성향의 이미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통합에 적극적인 대의원들이 박

전대표에 견제를 보내고 사수와 대의원들이 타 후보에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지만 현실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다.
2중을 형성하고 있는 김경재, 김영환 전 의원은 각기 다른 이미지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위를 위협하고 있다.
사수와 성향의 김경재 전 의원은 민주당 중심의 대통합을 주장하는 강경 성향 대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아무런 부담도 2 위는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개혁적 성향의 김영환 전 의원은 수도권과 호남지역 개혁 성향 대의원의 표심을 파고 들며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중도 성향의 심재권 전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지역 대의원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이 없다는 점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이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평화와 경제포럼에서 손을 맞잡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 25일 서울 중구 오장동 서울제일교회에서 방문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오랜 지인인 박형규(오른쪽) 목사와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盧 “**韓-GCC 자유무역협정 추진**”

〈결선평의〉

중동 원유·에너지 안정적 확보 절실

사우디 아라비아를 공식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한-중동 경제 협력확대의 틀로서 한국과 GCC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한-GCC FTA가 체결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우디 의회에 해당하는 국왕자문회의를 방문, 국왕자문위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연설을 통해 “21세기 한·중동 미래협력구상”의 하나로 한-GCC FTA 체결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안에 GCC측과 협상개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GCC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로,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레인 등 걸프지역 6

개 국가들이 역내 정치·경제·사회 부문의 통합을 위해 지난 1981년 구성된 지역 협의체이다.
청와대는 한-GCC FTA 추진 배경에 대해 “높은 구매력을 보유한 GCC와의 FTA 체결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GCC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책으로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이 우리보다 먼저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의 대 GCC 수출(2005년 62억달러)은 약 5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GCC 역내 국가들로부터 원유 수입의 68%, LNG 수입의 47%를 도입하고 있어, 석유 및 석유류 제품의 GCC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FTA 체결을 통한 GCC 국가와의 관계 강화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아울러 중동의 플랜트 발주 규모가 3년간 100%씩 증가해 2005년 1천억달러 규모를 뛰어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이들 플랜트 설비 조달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FTA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청와대는 “향후 GCC측과 협의를 통해 올해 중 FTA 협상 출범이 가능 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1세기 한·중동 미래 협력 구상의 또 다른 방안으로 “한국은 중동의 탈 석유 산업화 노력을 높 이 평가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개발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며 “아울러 중동의 발전전략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가까이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학규·정운찬, 원탁회의 참여 ‘고심’

정동영·천정배 ‘한영’ 김근태·한명숙 ‘공감’

종교계를 주축으로 한 진보연성 사회원로들이 범여권 예비 대권주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가치 ‘대통합 원탁회의’의 출범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등이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탁회의 구성은 정치권이 정계개

편을 추진할 자체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원로들이 나서 대선후보들이 모일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세 정치지형 형성을 촉발할 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과 민생 정치모임 소속 천정배 의원은 각각 지난 15일과 18일 범여권 대선주자들

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와 연성회의를 제안한 만큼 사회원로들의 구성에 적극적 반응이다.
하지만 정작 범여권의 기대를 받고 있는 손학규 전 지사와 정 전 총장은 “아직 그런 제의를 받지 못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장동 서울제 일교회에서 재야 원로인 박형규 목사 와 예배를 함께 한 뒤 ‘대통합 원탁회

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이다.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정 전 총장도 원탁회의 구성에 대해 “그 부분에서 연락을 받은 것이 없고 한번도 접촉한 적도 없다”며 “내가 아직 심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과 한명숙 전 총리는 원탁회의 구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참여 시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결산공고 24시간 FAX 및 E-mail로 접수합니다. **光 翊日報 廣告국** 전화 : (직)062-227-9600 FAX : 062-227-9500 E-mail : dd8111@hanmail.net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4월 2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 야간반) •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을 1위!** 새롭 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 (농성동)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 모집
1. 연수일정 [제3기]
• 개강입시 : 4. 19(목) 09:30
• 모집기간 : 3. 20(화)~4. 19(목)
• 수업기간 : 4월~8월(4개월 15주)
• 수강료 : 210,000
모집인원: 1단계 오전반 20명(선착순)
수업시간: (매주 화, 목) 09:30~12:30(3강좌)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 TEL(062)950-3584, 3585, HP.011-614-4160

국민과 함께하는 신진원조 **DYNAMIC KOREA**
한국해외봉사단원 연중 등록 및 모집 안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 무상원조사업을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열정과 건강을 갖춘 한국해외봉사단원 지원자를 등록받고 있습니다.
파견내역: 활동기간: 2년, 파견국가: 개발도상국, 파견분야: 상세한 파견분야는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www.koica.go.kr)참조
지원서 등록: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www.koica.go.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등록 후 개발도상국의 요청이 있는 파견지역에 대해서는 전형 및 파견 일정을 등록자에게 개별 통보
전형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3차: 신체검사, 신원조회, 신용조회
2007년 선발 일정: 구분, 2차 선발, 3차 선발, 비고
등록 마감: 2007. 4. 4 (수), 2007. 5. 17 (목), 희망자는 연중등록 가능하며, 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신 분은 추수별 시험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www.koica.go.kr)에서는 지원서를 연중 등록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외봉사단 모집선발상담센터에서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해외봉사단 모집선발상담센터: 주 소: (우 110-782)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번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외봉사단 모집선발상담센터 (전화 02-740-5178~9 / 팩스 02-740-5166)
위 치: 지하철 4층선 해외역 3번 출구
상담 시간: 월요일~금요일(공휴일은 휴무), 오전 9시~오후 6시
한국국제협력단